

빌레몬서 1 장

1. 바울이 로마에서 옥에 갇힌 채(거주 제한이거나) 복음을 전함으로 훌륭한 제자를 많이 만들었다. 그 중에 어떤 제자가 고백하기를 자신은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나온 노예라는 것이다. 주인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잘 아는 빌레몬이었다. 그래서 그 종의 손에 편지를 들려서 주인에게 돌려보낸다. 무슨 부탁을 하는가?

종을 용서하라. 그리고 다시 내게로 돌려보내라.

2. 만약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라면 위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하겠는가?

당연히 요구해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편지만 보내고 이해를 구하지 않을까? 어차피 들어줄 부탁이라면 먼 길을 오네시모가 갔다가 돌아오려면 시간도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일인데...

3. 이 부탁을 빌레몬이 들어주지 않을 수 없도록 바울이 사용한 '노골적인 요구'부터 '은근한 압력'까지 다 찾아보자(예를 제외하고도 최소한 10가지 이상).

1) 나는 갇힌 자(4, 9, 10, 13, 23): 옥중서신 네 권 중에서 문안인사를 하면서 갇혀 있음을 강조한 것은 빌레몬서뿐이다. 복음을 위하여 갇혀 있는 나를 팔세할 테냐?

2) 빌레몬을 가리켜 사랑받는 자요 동역자(1), 형제여(7, 20), 동무(17): 빌레몬에게는 참으로 영광스런 표현이다. 갇히 선생님인 나를 가리켜 동역자라고? 형제라고?

3) 함께 군사된 아립보: 아마 아들이었을 것이다. 존경하는 선생님이 자기 자식을 인정해 주는 것은 아버지에게 큰 기쁨이다.

4)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4): 존경하는 선생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다니...

5) 칭찬: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즐겼다(5).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6).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7).

6) 명령대신 부탁함: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8)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부탁인데...'

7) 나이 많은: 이 늙은이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8)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10): 복음을 위하여 아내도 자식도 없는 내가 모처럼 아들을 얻었는데 팔세할거 냐?

9) 내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네게도 유익하고(11) 저는 내 심복이다(12): 전에는 무익한 종이었지만 이제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10) 내게 머물러 두어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13): 내가 나를 위해서 해주어야 할 일을 대신하게 하려는데 괜찮지?

11)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 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14): 너의 승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너를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기도 하다.

12) 이 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이다(15): 저가 네 집에서 도망하게 된 것은 나를 만나 영원히 하나님 품에 두시려고 함이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돌아와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13) 내가 값쌌다(18): 값을 능력이 바울에게 있었을까? 바울이 친필로 쓴다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사인을 하는 것이다(19).

14) 내가 내게 빛진 것도 있잖아(19): 나로 인해 네가 복음을 받은 것을 의미할 것이다.

15)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감옥에 갇힌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쁘고 평안할 수 있다.

16) 내가 부탁한 것 이상으로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21)

17) 내게 꼭 가겠다(22): 내 부탁을 안 들어주면 내가 네게 갔을 때 내가 얼마나 미안하겠느냐?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라는 말의 실제로 머무를 처소 걱정하는 것이 아니다.

4. 바울은 빌레몬과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오네시모까지 높이 비행기를 태운다. 진심일까? 과장일까? 해보는 소리일까?

반히 보이는 다른 의도가 분명히 있지만 진심이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어린 사랑이 푹푹 떨어지는 말이다.

5.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고 그가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몇 달이 걸릴지 일이 잘못되면 해를 넘길 수도 있고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자신을 도와줄 한 사람이 아쉬운 판에 사도 바울은 일을 왜 이렇게 어렵게 처리하는가?

너의 선한 일이 역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14): 일의 능률을 생각한다면 결코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지 않는다. 바울의 관심은 일의 능률이 아니라 빌레몬의 선한 의지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 싶은 것이다. 헌금의 액수보다는 헌금하는 사람의 마음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한 사람의 재주보다는 그 사람 자체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더욱 어려울지 모른다.

6. 만약 오네시모가 가는 도중에 이 편지를 뜯어보았다면 어느 표현에 가장 감동이 되었을까?

내 심복(12), 내 아들(10), 사랑받는 형제(16) 중으로 살면서 오죽하면 도망쳤을까? 어리석거나 생각이 없는 종은 도망도 치지 않는다. 자신을 이렇게 인정하는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을까?

7. 우리에게 빌레몬서는 감동적인 서신이다. 그러나 도망친 노예가 주인집으로 돌아가면서 손에 들고 있는 편지 한 장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다. 무엇이라고 표현할까?

생사가 달린 편지, 사형수에게 내리는 사면장이나 마찬가지로: 오네시모는 자신이 도망쳐 나온 그 주인의 집으로 편지 한 장 들고 돌아가는 중이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적발이 되면 죽을지도 모른다. 도중에 이 편지를 잃어버려도 큰일이다.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오네시모가 가졌던 그 기분을 자신의 것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8.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고 선생님의 말에 순종했을 것이다. 오히려 선생님께 보내는 선물꾸러미를 주면서 '가서 나 대신 선생님을 잘 섬겨라'고 당부할 했을 것이다. 그것을 들고 돌아오는 오네시모의 모습을 그려 보라.

바울 선생님도 고맙고, 주인님도 고맙고 이 두 분이 나를 용서할 수 있게 해준 예수님도 고맙을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했을 것이다. "저 자식 왜 저렇게 웃고 있지?" 하늘 쳐다보고 웃다가 뜰부리에 걸려서 펍 엎어져도 웃으며 일어났을 것이다. "아이고, 이것도 감사합니다." 했을 것 같다. 바로 이런 오네시모의 기분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남이 보면 '이상하다'고 그럴 것이다.

9. 인간적으로 본다면 아쉬울 것이 전혀 없는 바울이 재자라고 할 수 있는 빌레몬에게 죽을죄를 지은 노예 오네시모를 위해서 통사정을 하듯이, 공갈치듯이 애원하는 모습은 누구의 모습과 닮았는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죽음을 들먹이며 용서를 구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닮았다. 그 예수가 없다면 바울도 결코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